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ETAK
Th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
www.etak.or.kr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

NEWS LETTER Issue 2019-3호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Email: etaknewsletter@gmail.com

회장 인사말

Presidential Message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농부의 이마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회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리 학회 주관으로 국내의 영어교육 전문학회 10개 학회와 국제학회 PAAL과 더불어 총 11개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한국 영어교육의 발전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수능 영어시험', '디지털 영어학습', '학습 격차', 그리고 '듣기·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에 관하여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의 장을 300여명의 청중과 더불어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2019 ETAK-STEM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Digital Paradigm of Dynamic English Through Transmedia」 주제로 다수의 국내·외 학자와 영어교사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마쳤습니다. 또한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직 영어교사 직무연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9일(토)에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실에서 「Enhancing the Student's Learning Activities through Digital English Contents」 주제로 **2019 ETAK Workshop**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와 사회는 '전문성'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는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 위에서 더 한층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 회원 모두의 지혜와 협동 그리고 단결이 필요합니다. 학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건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11월 9일 공주대학교 워크숍 행사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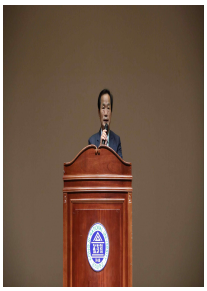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장
임 병 빈 드림

학회 소식

1. 2019년 ETAK & STEM 공동 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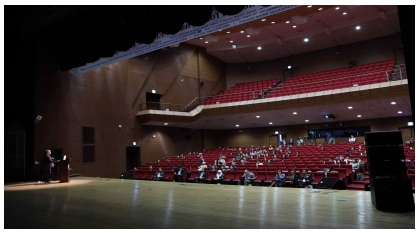


–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는 영상영어교육학회와 공동으로 '미디어 기반 디지털 패러다임을 활용한 효율적인 영어 교수학습' 이라는 주제로 2019 년 5 월 17 일부터 19 일까지 공주대학교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모바일 앱, 인터넷 TV, 유 튜브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 기반 디지털 패러다임 연구와 활용법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영어 교수·학습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2019 년 공동학술대회는 현직교사의 직무연수도 함께 진행되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에서의 트랜스미디어 전문가분들, 그리고 해외 유명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 인사 동정

– 2019년 이후 회원 여러분의 연구 활동과 인사에 대한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 김수연(안양대)

: 안양대학교 취·창업지원단장 보임
(2019년 9월 1일~2021년 8월 31일)

◎ 박휴버트(공주대)

: 국제교육원장 선임

◎ 성명희(을지대)

: 범태평양응용언어학회(PAAL) 회장 선임
(2019년 9월 1일~2021년 8월 31일)

◎ 이종복(목원대)

: 현대영어영문학회 회장 선임
(2019년 9월 1일~2021년 8월 31일)

◎ 정경옥(한남대)

: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회장 선임
(2019년 9월 1일~2021년 8월 31일)

공지 사항

1. 2019 ETAK 워크숍 개최안내

– 2019년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제1차 워크숍이 개최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11월 9일(토)
14:00~17:00

○ 장소: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실

○ 주제: Enhancing the Student's Learning Activities through Digital English Contents

○ 온라인 사전등록: https://forms.gle/4tPPmvSLjQggtYtZ9 (11월 7일 까지)

○ 등록비(참가비)는 무료입니다.

2019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제 1차 워크숍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사회자
13:30 ~14:00	참가자 등록		
14:00 ~14:10	개회식 환영사: 임병빈(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장) 축사: 이자원(국민대 명예교수, 전 STEM 회장)		홍영숙 (중원대)
14:10 ~15:10	2015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 영어 디지털 교과서 교수 학습	김성수 ㈜잉글리쉬 무무	전병만 (전북대)
15:10 ~15:50	기조강연: Digital Natives and Digital Immigrants: Implications for EFL Classroom	노윤아 (국민대)	이종복 (목원대)
15:50 ~16:30	구글 활용 학생중심 디지털 영어수업	김서영 (계룡중)	변향숙 (공주북중)
16:30 ~16:40	연구윤리 교육	박성만 (단국대)	이현우 (인하대)
16:40	폐회		

공지 사항

Notice

2. E-저널 페이지 발간 및 이용안내

- 2019년부터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논문집을 E-저널 페이지 (http://etak.or.kr/e_journal)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3. 회원 가입 안내

- 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선생님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대학교에 재직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학교 도서관이 본 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 관련 문의는 아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이사: 변향숙(공주북중)

이메일:sook9972@hotmail.com

4. 학회 발전 기금 모금 안내

- 우리 학회에서는 학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전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기금은 학회의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학회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농협 (351-0261-5617-23)

예금주: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 발전기금을 추가로 기탁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 이종복(목원대) 30만원
- 이학문(한밭대) 20만원

열린 논단

영어연어교육: 어휘화된 문법에서 문법화된 뭉칫말로



김낙복
(나사렛대)

지금까지 어휘의 중요성과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대부분 개별 단어에 관한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개별 단어의 다면적 결합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영어가 동사구부터 더 긴 관습화된 표현(institutionalized expressions)에 이르기까지 어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어휘 접근방식(Lexical Approach: LA)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LA의 중심 개념은 개별 단어가 빈번하게 다른 단어와 함께 쓰이는 방식인 연어(collocation)라고 할 수 있다(Lewis, 1993). 또한, 이 접근방식은 문법과 어휘를 이분법(dichotomy)으로 나누는 기존의 방식을 지양하고, 외국어 교수 학습에서 기존의 제시-연습-생성의 PPP 패러다임을 지양하며, 어휘 문법(lexico-grammar)을 지향하고, 관찰(observation)-가설(hypothesis)-실험(experiment)의 새로운 OHE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전통 방식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어휘론자들은 과거의 개별 단어와 문법 중심의 언어학습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으며(Conzett, 2000; Lewis, 1997; Nation, 2001; Wray, 2002),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적 언어학습은 개별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기보다는 단어 간의 결합관계인 연어와 같은 어휘 뭉칫말(lexical chunks)에 주목하여 관찰하고, 기록하고, 재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동안 구 구조 중심의 문법중심학습의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언어의 상당부분은 어휘들 간의 공기(co-occurrence)관계로 결합하여 분해되지 않는 전체(unanalyzed wholes)인 다단어 조립식 뭉칫말(multi-word prefabricated chunks)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언어 현상을 코퍼스기반 연구로 확인하였다. 즉, 하나의 문장을 과거와 같이 문법적으로 분석하거나 개별 어휘의 의미를 인식하기보다는 어휘 결합 어구(lexical phrases)에 주목하고 그것을 하나의 큰 덩어리인 뭉칫말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Nattinger & DeCarrico, 1992). 이처럼 뭉칫말(chunks)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하여 다단어 단위(multi-word units)를 구성하는 개념 조각을 지칭한다. 이는 분리되어 작용하기보다 빈번하게 하나의 뭉치로 발화되어 대개는 의미군(sense group)으로 연결된다. 주로 연어 짝(collocational pairs)을 의미하는데, 영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어 짝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어휘구와 어휘묶음(lexical bundles)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그 핵심으로써 어휘 배열능력인 연어 능력(collocational competence)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외국어 교수의 관심이 형태에 대한 초점(focus on form)으로 옮겨가고, 전통적으로 문법으로 여겨왔던 언어 패턴이 어휘 접근방식으로 재조명되면서 통합적인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 함께 어울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연어 관계는 어느 언어에서나 발견되는 공통현상이다. 언어 학습의 주된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미 알고 있거나, 더 나아가 새로운 어휘 학습에 있어서도 기반어(base)와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연어적 접근방식(collocational approach)으로 다양한 뭉칫말(chunks) 학습을 한다면, 그동안 어휘와 문법의 이분법적(dichotomous)인 언어 학습도 어휘-문법 통합적 관점에서 보다 의사소통적이고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연어적 뭉칫말을 짧은 문장 단위를 넘어 점점 긴 문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어 형태를 생각해내고 더 나아가 다양한 문장 형태로 뭉칫말화 함으로써 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제어를 제시하고 연상되는 개별어휘를 나열한 후 연어 뭉칫말 유형과 용례를 익히도록 한 후,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이어가고 다양한 유형의 연어 뭉칫말을 확산하는 연습을 하면서 연어 노트에 기록하고 필요할 때 재활용할 수 있다.

• 활동 예시 자료:

■ We are sharing our ideas/ about chunks and chunking.//

→We are sharing our ideas/ about chunks and chunking/ in an international workshop/ about English education.//

→We are sharing our ideas/ about chunks and chunking/ in an international workshop/ about English education/ with the theme/ of more effective integrated skills.//

→We are sharing our ideas/ about chunks and chunking/ in an international workshop/ about English education/ with the theme/ of more effective integrated skills/ and looking for ways.//

→We are sharing our ideas/ about chunks and chunking/ in an international workshop/ about English education/ with the theme/ of more effective integrated skills/ and looking for ways/ to improve the current learning methods and strategies/ in the EFL setting.//

결론적으로, 언어 학습의 주된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미 알고 있거나, 더 나아가 새로운 어휘 학습에 있어서도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연어적 접근 방식으로 뭉칫말 학습을 한다면, 영어 학습 활동을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EFL 상황에서 집중적인 명시적 어휘 학습(explicit vocabulary learning)을 실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언어의 입력(input)은 물론 수용(intake)과 출력(output)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며, 문법과 어휘를 통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지식(knowledge)과 영어를 실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네 기술(skills)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낙복. (2019). *영어연어교육론*. 서울: 한빛문화.

Conzett, J. (2000). Integrating collocation into a reading & writing course. In M. Lewis (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pp. 70-86). Lond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a way forward*.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ttinger, J. R., & DeCarrico, J. S. (1992). *Lexical phrase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ray, A. (2002). *Formulaic language and the lexic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학술지『영어어문교육』

1. 학술지 투고 안내

– 『영어어문교육』 25권 4호가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접수받아 심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고하신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며, 학술지는 12월 31일 발간 예정입니다. 23권 1호부터 책자는 50부만 인쇄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발간됨을 공지드립니다.

2. 논문투고 안내

–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영어어문교육』이 회원 여러분의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영어교육적 내용이 함축된 영어학, 영미문학, 그리고 영어교육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회원 여러분이 수행하셨던 개별 또는 공동 연구를 모두 환영합니다. 논문을 작성하실 때는 ETAK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시고 본 학회에서는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니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는 JAMS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께서는 MS-Word(2003 버전 이상)로 작성하신 논문 파일을 학회 JAMS https://etak.jams.or.kr/에 논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지에 논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옥고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어문교육』의 발행일자 및 논문 투고 마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호: 3월 30일 (원고마감 1월 15일) 국제호(영문판)

2) 2호: 6월 30일 (원고마감 4월 15일)

3) 3호: 9월 30일 (원고마감 7월 15일) 국제호(영문판)

4) 4호: 12월 30일 (원고마감 10월 15일)

연구 윤리

ETAK Code of Ethics

* 우리 학회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ETAK 연구윤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TAK 윤리 헌장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윤리

ETAK 윤리 헌장

ETAK 윤리 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 고양을 목적으로 함

제1조: 학회의 회장, 차기 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학회의 회장 및 차기 회장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영어교육학과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5조: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 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TAK 표절 규정

제1조 (정의):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 하는 것으로 정의

제2조 (유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한국연구재단(2019).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Guidelines for Publication Ethics)

1. 누가 저자인가? (Authorship)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를 저자됨으로 정의할 것을 권고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그리고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 그리고

3) 출판하기 위한 최종본에 대한 승인; 그리고

4)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

2. 저자됨 문제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1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자됨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1) 연구에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선물 저자)

2)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외하는 방법

2. 저자됨 문제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2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권고 한다.
1) 윤리적 저자됨의 문화를 장려하라
2) 연구 계획 단계부터 저자됨의 논의를 시작하라
3) 각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저자됨을 결정하라

한국연구재단(2018).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1.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란?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표할 연구논문이 채택되는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의미
2.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1
(출판) 동료심사, 수정 등 일반적인 학술지 출판 과정이 생략된다.
- 동일 논문이 반복해서 출판되거나 타 학술지 논문이 출판된다.
- 논문 제출과 출판 간의 간격(기간)이 매우 짧다(1개월 이내).
(양식) 논문 제출 양식(format)이 조악하다.
(학문범위)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룬다.
(비용) 홈페이지에 논문 게재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개인 이메일로 청구된다.
(광고) 스팸 이메일 형식으로 논문 제출을 독려한다.
2.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2
(단체명) 학술지 명칭에 World, International, Global과 같은 형용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World, International, Global로 시작하는 저널 중에도 우수 저널이 많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회위치) 학회 사무국이 선진국(미국, 유럽, 호주 등) 도시에 있다고 주장 한다.
(영향력지수) 홈페이지에 해당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IF)가 높다고 언급한다.
(주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외에 일반 주소가 없다.
3.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대회-1
(이메일 계정) gmail, hotmail 등과 같은 상업용 이메일 사용한다.
(참석)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학회참여증서를 준다고 선전한다.
(학문범위)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룬다.
(운영위원) 학회 운영위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 무단으로 저명한 연구자를 운영위원으로 내세워 다른 연구자들을 현혹한다.
(학회날짜) 초록 마감일, 논문 제출일, 학회일 등이 자주 변경된다.
(현혹) 무료 숙박, 숙식, 항공권 등으로 선전하여 연구자를 현혹 한다.
(학회장소) 관광하기 좋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지불방식) 일반적인 학회는 신용카드를 통해 학회비를 지불하는 반면 부실 학회는 현금 송금을 요구한다.
3.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대회-2
(명성이용) 해당학회를 유명 출판사에서 주최한다고 광고한다.
(학회프로그램) 학회운영 프로그램이 애매하고 토론자나 강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초청방식) 일반학회는 연구논문에 대해(e.g. call for papers) 모집하지만 부실학회는 연구자에게 직접 초대 이메일을 보낸다(e.g. You are invited). ※ 해당 학회에서 발표하면 SCI급 저널에 게재된다고 광고한다.
(참석증서) 참가비를 지급 후 학회날짜 전에 학회참석증서 발급한다.
(강연자 초청옵션) 일반학회는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지만 부실학회는 일정금액을 내면 원하는 강연자를 초청해준다고 약속 한다.
(부실 테스트) AI 등으로 작성한 이상한 논문 초록을 시험 삼아 보내보고 그 논문 초록이 학회에 초청되면 부실학회이다.

ETAK Code of Ethics

4.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1
논문 투고 시 점검사항
-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 입니까?
-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 편집위원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명확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4.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2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
- 학회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범위와 목적이 관심분야에 적합합니까?
- 기조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5. 부실학술활동 예방 관련 사이트-1
5. 부실학술활동 예방 관련 사이트-2

연구 윤리

Beall List 활용 시 주의 사항

- Beall의 Publisher list 중에 특정출판사가 다수의 학술지를 보유한 경우, 한 두 개가 약탈적 저널임에도 그 출판사가 펴내는 모든 저널이 약탈적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 Beall list는 시간적 척도가 없어 언제 특정 저널이 약탈적 저널로 분류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과거에는 동료심사를 거쳤던 저널이 현재에는 약탈적 저널로 분류된 경우가 있어 리스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추적이 어렵다.

감사합니다.